2월 윈터
커리큘럼

						2/1 (일) 자율학습 평일 복습 + 시크릿 자료
2/2 (월) 독서 인문예술 나의 언어로 재진술하라	2/3 (화) 문학 고전소설 장면단위로 요약하라	2/4 (수) 독서 사회문화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라	2/5 (목) 문학 현대소설 인물의 심리에 몰입하라	2/6 (금) 독서 과학기술 원리와 실험을 연결하라	2/7 (토) 자율학습 평일 복습 + 시크릿 자료	2/8 (일) 자율학습 평일 복습 + 시크릿 자료
2/9 (월) 문학 고전시가 대주제를 파악하라	2/10 (화) 독서 인문예술 나의 언어로 재진술하라	2/11 (수) 문학 현대시가 상황과 반응을 파악하라	2/12 (목) 독서 사회문화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라	2/13 (금) 문학 고전소설 장면단위로 요약하라	2/14 (토) 자율학습 평일 복습 + 시크릿 자료	2/15 (일) 자율학습 평일 복습 + 시크릿 자료
2/16 (월) 독서 과학기술 원리와 실험을 연결하라	2/17 (화) 문학 현대소설 인물의 심리에 몰입하라	2/18 (수) 독서 인문예술 나의 언어로 재진술하라	2/19 (목) 문학 고전시가 대주제를 파악하라	2/20 (금) 독서 사회문화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라	2/21 (토) 자율학습 평일 복습 + 시크릿 자료	2/22 (일) 자율학습 평일 복습 + 시크릿 자료
2/23 (월) 문학 현대시가 상황과 반응을 파악하라	2/24 (화) 독서 과학기술 원리와 실험을 연결하라	2/25 (수) 문학 고전소설 장면단위로 요약하라	2/26 (목) 독서 인문예술 나의 언어로 재진술하라	2/27 (금) 문학 현대소설 인물의 심리에 몰입하라	2/28 (토) 자율학습 평일 복습 + 시크릿 자료	



1일 1지문 1코칭
RUN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부법

1일 1지문 · 1코칭

국어 마라톤은 단순히 하루 한 지문을 읽게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국어 강사로 살아오며 쌓아온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
현장에서 다듬어진 실전 감각과 내공이 모두 녹아 있는 공부법입니다.

독해력은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반복을 통해서만 길러집니다.

하루의 루틴이 쌓여 결국 성적으로 증명되는 구조,
그 과정은 이미 수천 명의 학습 결과로 검증되었습니다.

이 마라톤을 통해 스스로의 변화를 분명히 체감하는
의미 있는 성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의 옆에서,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마라톤 국어 김종현 드림

마라톤 과제 제출법 가이드 [한 장 요약]

1. 마라톤 웹에서 업로드 된 과제 다운로드 [패드 풀이 혹은 인쇄 풀이 중 선택]
- www.marathonstyduy.com 으로 접속하여 부여받은 핀번호로 클래스에 입장 후 과제를 다운로드합니다.
- pdf 다운 받아 패드에 넣어 풀어도 되고, 인쇄하셔서 풀이하셔도 됩니다.
- 매일밤 24시에 업로드됩니다. [업로드 시간 변경되는 경우 저희가 사전 공지 해 드립니다.]
- 휴대폰, 패드, 노트북, 데스크탑 등 모든 기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삼성 브라우저의 호환이 일부 불안정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정 접속 현상 발생 시 크롬 사용을 권장합니다.

2. 과제 풀이 완료 [평균 10분~15분]
- 과제를 풀 때에는 "순수 풀이 시간"을 측정합니다.
- 시간을 재되 제한시간 안에 풀지 못했다고 해서 찍지는 않습니다.
- 시간을 재는 이유는 나의 풀이시간을 스스로 파악하기 위함 + 집중력 발휘, 실전 감각 함양을 위함입니다.

3. 채점 + 오답정리 + 지문 장악 [평균 15~30분]
- 오답 정리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3단 오답정리법"을 진행합니다.
- 지문 장악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문학, 비문학 지문을 깊게 이해하려 노력하며 오답정리합니다.
- 종현샘의 영상은 단순 문제 풀이가 아니라, 학생이 먼저 충분히 고민하고 학습했다는 것을 전제로 제공되는 실전 피드백 코칭입니다.
- 스스로 지문과 문제를 이해하려는 과정이 잘 선행될수록, 이후 코칭 영상의 이해도와 학습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3. 코칭 영상 시청 [평균 15분]
- 영상 속 필기는 필기노트에 있으므로 눈과 귀로만 즐겁게 라디오 듣는 느낌으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 나의 풀이와의 공통점, 차이점을 생각하며 필기보다는 사고하며 이해에 초점을 맞춥니다.
- 영상 속에는 종현샘의 퀴즈가 숨어있습니다. 답변 기억하셨다가 제출 시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4. 필기노트 보며 내 과제에 샘 필기 주요 부분만 추가로 적어넣기 [평균 5~10분]
- 영상 시청 후 필기노트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 필기노트를 펴고 한번 읽으며 종현샘이 이해한 내용을 상기합니다.
- 모든 부분이 아닌 내게 부족한 부분들을 나의 과제집에 옮겨 필기합니다.

5. 마라톤 웹에다가 마감 시간 내에 과제 제출
- 필기노트의 주요부분까지 필기 완료된 나의 과제집을 마감 시간 내 제출합니다.
- 패드 풀이의 경우 화면 캡쳐 방식으로, 인쇄 풀이의 경우 사진 촬영의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 본인의 풀이가 잘 보이게 촬영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답정리와 코칭 영상 시청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질문을 종현샘께 1:1로 합니다.
- 질문이 없는 경우에도 선생님과 가벼운 스몰토크! 안부 인사 및 소통 적극 환영입니다!

5. 다음날 종현샘이 채점 후 주신 피드백을 확인합니다.
- 종현샘이 현장 수업 후 새벽에 주로 채점합니다. 직접 다 읽어보시고 1:1 피드백을 드립니다.
- 평균 익일에 종현샘의 피드백이 도착합니다.
- 추가 질문은 다음날 과제 제출 시에 언제든 해주시면 됩니다.

→ 위 1일 1지문 1코칭의 과정을 데일리로 반복하며 루틴과 실력을 만들어 갑니다.

1일 1문장의 힘

난관에서 기적이 나온다.

1일 1지문의 힘

▣ 문학 – 현대시 (31409B)[i]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엷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왼 산은 차가운 수묵(水墨)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래도 왼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③ 어순의 도치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④ 흑백의 대비를 통해 회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⑤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김종길의 「고고」는 대상이 지닌 특정 속성을 통해 화자가 경험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에 소멸을 앞둔 대상을 통해, 「고고」에서는 겨울날 대상의 고고함이 드러나는 순간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이 경험되고 있다. 한편, 전자는 대상 자체보다는 대상에서 촉발된 주관적 정서의 표현에, 후자는 정서의 직접적 표현보다는 대상 자체의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① (가)에서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를 직접 노출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군.
② (가)에서는 한정된 시간 동안 존속하는 속성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화하고 있군.
③ (나)에서는 대상의 높이가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군.
④ (나)는 대상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때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군.
⑤ (가)와 (나)는 각각 특정한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군.

3. ㉠, ㉡과 관련지어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의 '설움'은 ㉠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을 나타낸다.

② (가)의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는 ㉠의 경험이 화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나타낸다.

③ (가)의 '찬란한 슬픔'은 ㉠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강렬한 정서를 나타낸다.

④ (나)의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은 ㉡을 경험할 수 있는 특정 시간을 나타낸다.

⑤ (나)의 '가볍게 눈을 쓰는'은 ㉡을 경험하기 위한 대상의 요건을 나타낸다.

1일 1 지문 장악의 힘

[문풀&오답 후 강의를 보기 전 간단히]

■ 파트 별 지문 장악법 [쌤의 필기노트와 비교해 보며 공부]

- 문학 : "줄거리와 인물 심리" 위주로 자유로이 지문 요약
- 독서 : "문단 별 중심 내용 위주"로 자유로이 지문 요약

1일 1코칭의 힘

[문풀&오답 후에 강의를 본 뒤에 작성]

■ 데일리 퀴즈

-질문? 두 시는 모두 '대상이 특정한 순간에만 드러내는 속성'이라는 상황과, 그 순간을 기다리거나 상실을 경험하는 화자의 반응을 대비하여 읽어야 한다.

-답변?

정답 및 해설

i[31-33] 현대시 - (가)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 김종길, '고고(孤高)'(가)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작품해설 : (가)는 모란이 피기를 기대하는 마음과 모란을 보내는 서러움을 표현함으로써 기다림의 정서와 상실의 설움을 대응시키며 모란으로 상징되는 소망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 시의 중심 소재인 모란은 화자에게 아름다움이자 삶의 보람이며 간절히 소망하는 대상이다. 화자가 참고 기다리고 또 우는 것도 모두 모란이 피고 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자에게 봄은 모란이 피는 기쁜 시간이지만 모란은 곧 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화자는 모란이 피어 있는 잠깐의 시간을 위해 삼백 예순 날을 기다리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역설적 표현에 집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주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림(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나) 김종길, '고고(孤高)'

(나)는 북한산의 고고한 높이를 통해 삶의 고고한 자세를 환기시키면서 북한산이 제높이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북한산은 신록이나 단풍, 혹은 적설, 또는 안개 낀 상황에서는 제 높이를 나타낼 수 없다. 그 이유는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고 '왼 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이 되어야 그 고고한 높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산이 그때를 기다려야 하듯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도 그런 기품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함을 아울러 환기하고 있다.

[주제] 고고한 삶의 자세 지향

(가)「모란이 피기까지는」

#상황
모란이 피고 지는 자연의 시간 속에서 봄이 오고 결국 사라지는 순간에 놓여 있다.

#반응
화자는 모란의 개화와 소멸에 자신의 삶을 겹쳐 놓으며 기다림과 설움, 상실의 정서를 드러낸다.

■ 원포인트 레슨
이 시는 '모란의 소멸'이라는 상황에 대해 화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따라가며 정서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나)「고고(孤高)」

#상황
북한산은 오직 눈 내린 겨울 이른 아침에만 본래의 고고한 높이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

#반응
화자는 그 순간을 이상적 가치로 여기며 반복적으로 기다림의 태도를 강조한다.

■ 원포인트 레슨
이 시는 '산이 처한 조건'이라는 상황과 그 높이를 회복하길 바라는 태도의 대비를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 통합 원포인트 레슨
두 시는 모두 '대상이 특정한 순간에만 드러내는 속성'이라는 상황과, 그 순간을 기다리거나 상실을 경험하는 화자의 반응을 대비하여 읽어야 한다.

I.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실제 현장 선지별 선택 비율

정답률	1번	2번	3번	4번	5번
85.2%	3.8%	85.2%	4.5%	3.2%	2.2%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정답률85.2%]

② (가)는 1~2행과 11~12행이, (나)는 1연과 6연이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다. 수미상관의 구조는 첫 연과 끝 연이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처럼 일부 행이 같은 내용과 비슷한 문장 구조로 반복되거나 (나)처럼 첫 연이 마지막 연에서 변형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한 시는 구조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주거나, 반복되는 부분의 내용이 강조되거나, 운율을 형성하는 등의 효과를 거둔다. (가)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주제 의식이, (나)는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할 날을 기다리며 그와 같은 고고한 삶을 지향하겠다는 주제 의식이 담긴 부분이 반복되며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와 (나) 모두 화자가 공간을 이동한다고 볼 수 있는 구절이 없다. ③ (가)의 11~12행이 어순의 도치를 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순을 도치하여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나)에서는 어순이 도치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나)는 '수묵'이라는 시어가 흑백의 대비를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눈으로 덮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는 점에서 흑백의 대비를 떠올릴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가)는 모란꽃의 색깔이 연상되고 흑백의 색채 이미지를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흑백의 대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⑤ (가)와 (나) 모두 가상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가)는 모란이 핀 것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나타낸 것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이기 때문이다. (나)의 '~려면'이라는 표현을 가상의 상황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이 표현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2.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평가

*실제 현장 선지별 선택 비율

정답률	1번	2번	3번	4번	5번
66.9%	5.0%	5.0%	66.9%	20.6%	1.5%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정답률66.9%]

③ 이 시의 대상인 북한산이 고고한 아름다움을 보이려면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 가볍게 눈을 쓰고' 있어야 한다. 즉 대상의 높이는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조건 중 하나이지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나'가 모란이 피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있다. '나'라는 표현을 통해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를 직접 노출하고 있다. ② (가)에서 대상(모란)은 짧은 시간 동안만 피어 있다. 시의 표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일 년 중 '삼백 예순 날'을 제외한 5일 동안만 모란이 피어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5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정된 시간 동안만 모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화한다. 오랜 기간 접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고 소중하며 더 아름답게 느낀다는 것이다. ④ (나)에서 대상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은 2연과 3연에, 그렇지 않은 순간은 4연에 드러나며 대비를 이루고 있다. ⑤ (가)는 봄, (나)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3.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

*실제 현장 선지별 선택 비율

정답률	1번	2번	3번	4번	5번
80.4	%80.4	%3.5	%7.4	%2.1	%5.6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정답률80.4%]

① (가)의 '설움'은 ㉠ '나의 봄'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나의 봄'이 끝났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일 년 중 '삼백예순 날'을 제외한 날, 혹은 사계절 중 봄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을 '한 해'가 다 갔다고 할 정도이므로 ㉠의 험이 화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③ '찬란한 슬픔'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찬란한'은 모란이 피었을 때의 기쁨을, '슬픔'은 모란이 지고 났을 때의 설움을 뜻한다. 역설적인 표현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강렬하고 인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강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찬란한 슬픔'은 화자의 감정을 강렬하고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④ 백운대와 인수봉이 '고고한 높이'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왼 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 어느 겨울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즉 '어느 겨울 이른 아침'이 ㉡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제시되어 있다. ⑤ ㉡은 '눈이래도 왼산을 뒤덮는 적설'이어서는 안 되고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정도의 눈이어야 경험할 수 있다.